

제 2 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소개 자료

2018. 8.



제주퀴어문화축제
Jeju Queer Culture Festival



<우리의 약속>

1. 우리는 성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나이, 성별,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연애지향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2.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며, 상호 동의 없이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서로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 연애 지향을 존중하며 그에 따른 고정관념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4. 서로를 지칭할 때 국적, 인종이나 지정성별 등을 추론해서 지칭하지 않습니다.
5. 서로의 종교, 정치성향에 대한 통념이나 선입견을 상대방에게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상대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 연애지향을 밝히지 않습니다.
7. 우리 축제는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8. 타인을 소외시킬 수 있는 대화는 지양합니다.
9. 위의 약속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며 모든 상황은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제 2 회 제주퀴어문화축제

1) 축제 개요

- 행사명: 제 2 회 제주퀴어문화축제 “The 2nd Jeju Queer Culture Festival”
- 일 시: 2018 년 9 월 29 일(토) 12:00
- 장 소: 신산공원
- 슬 로 건: 탐라는 퀴어 (Tamna is Queer)
- 프로그램
 - 자긍심의 행진, 공연, 퀴어 장기자랑
 - 연극공연(퀴어연극제 X 제주퀴어문화축제)
- 주 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후 원: Jeju V-Day, 비온뒤무지개재단 등

2) 기획 방향

- 제주퀴어문화축제라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장을 마련해 제주의 끈끈한 권당 문화 속에서 배제 당해 온 퀴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퀴어가 공동체의 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축제의 전 과정에 있어 모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주요 인권 평화 축제로 자리매김한다.

3)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구성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제주의 퀴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의 필요성에 공감한 퀴어 당사자와 앨라이(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지를 뜻함) 등 총 11 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조직위원장은 제주 출신 김기홍이며, 크게 기획팀, 디자인팀, 대외협력, 구술기록팀으로 나뉘어 있다. 외부 협력으로 고문 변호단 등이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4) 두 번째 축제 슬로건과 CI 소개

- 슬로건 “탐라는퀴어”

두 번째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탐라는 퀴어 (Tamna is Queer)’다. 제주 섬 ‘탐라’에서 퀴어가 주인공이며, 소셜 미디어의 타임라인을 장식할 탐나는 퀴어들과 함께 축제를 만드다는 의미이다.

- CI “무지개 조랑말”

축제 CI는 무지개 조랑말로, 제주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퀴어를 뜻한다. 퀴어문화축제가 서울, 대구, 부산, 전주, 인천, 광주 등 전국 도시에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지역성을 조랑말로 강조했으며, 무지개로 통용되는 퀴어 그 자체를 뜻한다.



5) 시민에게 열려 있는 다양한 축제의 채널

- Homepage: <http://jejuqcf.org>
- SNS: <http://www.facebook.com/jejuqcf/> <http://twitter.com/jejuqcf/>
- 온라인펀딩: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5784> (9.28. 모금 종료)
- 후원 계좌: 농협 301-0235-1482-11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6)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다양한 연대 활동 단체

-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 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
- 세월호촛불연대

[제 1 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결성 선언 기자회견문]

“제주에도 퀴어가 있어요. 우리 함께 혐오와 차별을 넘어요!”

지난해 8 월, 바로 이곳 제주시청 여자화장실에서 성폭행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전형적인 여성혐오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고작 징역 3 년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곳 제주시청 여자화장실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 가하는 각종 혐오범죄와 차별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 1 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늘 이곳에서 결성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여자화장실 성폭행사건을 기억하고, 더 이상 사회적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혐오와 차별이 이곳 제주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그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위치는 마치 제주의 위치와 비슷합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엄연한 하나의 도이지만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가 멀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 받아 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힘이 센 국가들 사이의 전쟁 놀이터로 이용당했습니다. 성소수자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겪지 않아도 될 온갖 차별과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또래 사이에서는 늘 놀림감이 되어왔고, 낯선 사람들에게 욕설과 혐오발언을 들어왔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 왔습니다.

제주에 사는 성소수자의 삶은 참으로 힘듭니다. 제주의 좁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소수자라고 밝혔을 때 제주의 공동체는 성소수자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하기는커녕 이질적인 무언가로 여기며 공격하고 배척합니다. 지금 제주의 공동체는 성소수자를 더 움츠러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성소수자는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단지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들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명취급 해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여러분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제주의 도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성, 나이, 직업, 학력, 장애, 지역, 피부색 등 어떤 부분에서든지 소수성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이들, 일터와 삶터에서 사회의 혐오와 멸시, 차별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 하지만 이 부당한 현실을 깨뜨리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친구들, 모든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10 월 말 제주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 것입니다. 이 축제가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소수자들이 사회의 고정관념과 혐오문화를 깨뜨리고 사랑과 평화의 힘을 지지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시오.

오늘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제 1 회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성사를 지지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축제 당일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이 땅 제주에서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때까지! 퀴어옵서예!

2017년 8월 28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 선언 기자회견문

퀴어가 퀴어나지 않는 행복한 탐라를 만드는

퀴어들의 탐나는 동네 잔치 <탐라는 퀴어>

퀴어신디 꺾어진 사람이란 꺾명 제주에서 퀴어나게 멘드는 제주는 이제 어실거우다!

(퀴어한테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주에서 튀어 나가게 만드는 제주는 이제 없을 겁니다!)

1년 전 우리는 바로 여기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결성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여성 혐오 범죄가 있던 이곳의 사건을 기억하고 더 이상 소수자를 향한 혐오 범죄와 차별이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제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혐오 민원에 의한 행정의 방해를 겪어야 했고, 소송을 거치며 힘겹게 축제 장소를 지켜냈습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축제와 자금심의 행진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제주에도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하는 장소에 찾아와 퀴어와 연대자들을 향해 막말을 하거나 위협하는 혐오세력을 만났습니다. 자금심의 행진 때는 방해하다 못해 위협을 가하는 혐오 세력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레 무사히 마치고 제주에서 자금심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자금심 가득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퀴어들과 그

연대자들이 제주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서로를 응원했던 그날, 흥으로 혐오에 맞서 연대로 대응하던 그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한목소리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던 그날, 우리는 그날의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도 퀴어의 삶과 존재를 이야기하기 위해 거리 선전을 했습니다. 제주도내 성소수자 인권 간담회를 가지며, 제주의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알렸습니다. 선거 때는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그들의 인권 의식에 관하여 알리며 제주의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위해 다양한 곳에 연대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사는 퀴어의 목소리를 담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름처럼 다시 축제를 하려 합니다. 제주에서 퀴어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흥겨운 잔치를 다시 한 번 벌이려고 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연대의 힘과 뿌듯함을 통해 제주의 퀴어와 그 연대자들이 인권, 평화의 자긍심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2회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탐라는 퀴어"입니다. 탐라는 지금 제주라 불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나중에는 강제로 건너 땅이라는 뜻인 제주라는 이름이 붙었고, 유배지이자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근대에는 일제의 제국주의 확장을 위한 군사기지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외부의 폭력에 디아스포라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디아스포라의 땅입니다. 예멘에서 나와야만 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여기서도 안전을 위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제2공항 추진으로 삶의 터전이자

고향을 잃을 뿐 아니라 조장된 갈등으로 인해 성산 공동체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림로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했더니 계속 난개발을 하던 그대로 숲 파괴와 도로 공사로 답해 갈등을 조장해 제주 공동체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해군과 정부는 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국제관함식을 조건으로 사과한다고 하여 갈등을 조장해 강정 마을 공동체는 다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귀어도 비슷합니다. 귀어는 제주에서 귀어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다며, 서로 너무 잘 안다며, 공동체에서 견딜 수 없어 귀어나는 디아스포라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주의 귀어가 이 땅에서 귀어로 잘 살 수 있고, 귀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우리는 탐라를 귀어가 행복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모두의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에 귀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것이고, 우리는 귀어나지 않아도 되는 탐나는 귀어라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모두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귀어나지 않아도 되고 귀어의 행복을 퍼트릴 수 있도록 9월 29일 신산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제주귀어문화축제 “탐라는 귀어” 오피스에!

2018 년 8 월 31 일 금요일

제주귀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 제주 퀴어문화축제의 타임라인

- 2017. 4. 13. 군인권센터의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 처벌 지시" 폭로
- 2017. 4. 25.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 혐오 질문,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대답, 심상정 후보의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성소수자 옹호 발언
- 2017. 4. 2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이 문재인 후보의 기자회견 현장에 기습 항의 방문과 이후 그들에 대한 혐오성 비난
- 2017. 5. 25. 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로 군형법 92 조 6 항 폐지 법안 발의, 그에 따른 반발 중 제주도내 시민사회 내에서 개정안 발의 비난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이에 문제 제기한 제주의 시민 활동가들이 성소수자 인권 가시화를 위한 축제 제안
- 2017. 6. 10. 제주퀴어문화축제 첫 준비 모임
- 2017. 8. 28.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결성 및 개최 선포 기자회견
- 2017. 9. 29. 제 1 회 부산퀴어문화축제 연대 참여
- 2017. 10. 14. 제주 프린지 페스티벌 부스 참여
- 2017. 10. 17. 제주시가 혐오 민원을 받아들여 신산공원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2017. 10. 18. 장소사용 협조 철회 알림
- 2017. 10. 19. 제주지방법원에 장소사용 협조 철회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
- 2017. 10. 24. 제주지방법원 및 제주인권위원회 출석
- 2017. 10. 26. 제주인권위원회 지지 및 연대 성명 발표
- 2017. 10. 26. 간성(Intersex) 가시화의 날 홍보 활동
- 2017. 10. 27. 제주지방법원의 장소사용 허가 철회에 관한 일부 인용 결정
- 2017. 10. 28. 축제 개최
- 2017. 11. 20. TDoR(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홍보활동
- 2017. 12. 1. 세계 에이즈의 날 홍보 활동

- 2017. 12. 8. 범성애 자긍심의 날(Pansexual Pride Day) 홍보 활동
- 2018. 1. 30. 제 1기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해단 및 2기 준비 선언 기자회견, 제주 성소수자 인권 간담회
- 2018. 2. 28. 전국 인권활동가대회 참여
- 2018. 3. 1. ~ 제주지역 성소수자의 삶을 알기 위한 구술 기록 활동
- 2018. 3. 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홍보활동
- 2018. 3. 31.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금 마련을 위한 Jeju V-Day 캠페인 참여
- 2018. 4. 7. 제 1회 전주퀴어문화축제 연대 참여
- 2018. 4. 26.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홍보, 故육우당 15주기 추모 활동
- 2018. 4. 26.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성소수자 인권 가시화를 위한 정책 질의서 발송
- 2018. 5. 1. 노동절 제주대회 연대 활동
- 2018. 5. 17. IDAHOTBi(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기념, 정책 질의 답변 공개 및 성소수자 정책 요구 기자회견
- 2018. 5. 17. IDAHO 위원회의 브로슈어 및 포스터 번역 및 배포
- 2018. 5. 25. 지방선거 혐오대응네트워크 제주 연대 활동으로 원희룡, 문대림 제주도지사후보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항의하는 피켓팅 및 기자회견
- 2018. 5. 29. 제주대학교 퀴어 모임 퀴어움 QUTE 와 함께 혐오 반대 분필 낙서 퍼포먼스
- 2018. 6. 23. 제 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부스를 포함한 연대 참여
- 2018. 7. 14. 제 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를 포함한 연대 참여
- 2018. 7. 21. 아트세닉 커뮤니티 파티에서 발표
- 2018. 7. 30.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대참여
- 2018. 8. 31. 제 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 선언 기자회견
- 2018. 9. 29. 제 2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 예정

<끝>